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 · 인프라 동향 보고(10.31)

1.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

ㅇ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Source: https://www.bb.org.bd/en/index.php/econdata/index

구 분	내 용	비 고
은행간 환율	110.50 Tk/USD (전주대비 0.00△)	'23.10.31 기준
기준금리	4% 유지	'23.09월 기준
월평균 시중금리	6.41% (전월대비 0.13▽)	'23.09월 기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3년 10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ㅇ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현지화 10년물 8.505%)

▼ 8.505 -0.00 -0.00%
출처:http://www.worldgovernmentbonds.com/bond-historical-data/bangladesh/10-years/

Yield changed +0.0 bp during last week, +0.0 bp during last month, +23.5 bp during last year.

Current Yield is close to **1 year maximum value**

Period	Change	Min	Range	Max
1 Week	0.0 bp	8.505 % Oct 25, 2023	*No change*	8.505 % Nov 1, 2023
1 Month	0.0 bp	8.505 % Oct 1, 2023	*No change*	8.505 % Nov 1, 2023
6 Months	0.0 bp	8.505 % May 1, 2023	*No change*	8.505 % Nov 1, 2023
1 Year	+23.5 bp	8.210 % Nov 2, 2022		8.510 % Jan 14, 2023

Current Yield: **8.505%**

□ IMF, 47억 달러 대출에 대한 외환보유액 및 수익 목표치 완화

- 국제통화기금(IMF)은 방글라데시에 대한 47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위해 정한 외환보유액, 수입 징수액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
- 올해 초 IMF는 외환보유액 목표를 9월까지 253억4000만달러, 내년 6월까지 268억1000만달러로 설정한 바 있음.
- 준비금 산정 계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액은 211억 5천만

달러이지만, 순수 보유액 기준으로는 180억 달러 이하로 더 감소.

-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부 관리들은 IMF에 외환보유액 목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IMF는 이러한 요청을 일부 수용함. 방글라데시는 올해 12월 말 184억 달러, 내년 6월 말에는 200억 달러 수준으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기로 약속.

□ 외채 채무액 전년 동기(1분기) 65% 급증

- 올해 회계연도 1분기(2023~24 회계연도) 대외 채무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이상 급증한 8억7,050만 달러를 기록.
- ERD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원금 상환액은 4억9,200만달러, 이자 지급액은 3억7,850만달러.
- 많은 외국투자 프로젝트가 상환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채 상환액이 증가하는 중이며, 부채 상환이 다음 분기에도 계속 증가할 것.

2. 건설 · 인프라 시장 동향

□ 방가반두 터널 공사 완공 임박

- 방가반두 터널(Bangabandhu Tunnel)이 완공을 앞두고 있음. 98.70%의 공사가 진척된 이 프로젝트는 카르나풀리(Karnapuli)강 아래에 있는 국내 최초의 다차선 터널로써, 10월 28일에 개통될 예정. 터널은 카르나풀리 강 아래 18~31m 깊이에 위치.
- 추가 토지 취득, 스캐너 기계 설치, 서비스 도로 및 안전 시설을 위한 기반 시설 개발 등 특정 요소들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
- 사업 당국은 이 남은 공사가 터널 개통 이후 완공될 수 있는 만큼 개통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평가.
- PM, Harunur Rashid Chowdhury는 "방가반두 터널은 100% 개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보조 작업은 취임 후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한이 12월까지 연장

됨에 따라 남은 작업을 끝낼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발표.

- 당초 프로젝트 건설비용은 Tk8,446크로어로 추정, 프로젝트 기간은 2020년 11월까지로 설정. 2018년 11월, 비용은 Tk10,374크로어로 증가했고, 올해 1월 17일, 프로젝트 수행 비용은 Tk10,689크로어 7,00033크로어로 급증.
- 방글라데시 정부는 Tk4,699 크로어 70 Lakh 66,000을, 중국 수출입은행은 Tk6,070 크로어 67 Lakh를 프로젝트 비용으로 지원.

□ Rampal 발전소 2호기 시운전 시작

- 방글라데시-인도 우호전력회사(BIFPCL)는 2022년 12월 17일 첫 번째 발전소가 생산을 시작했으며, 2호기까지 가동할 경우 발전소의 총 용량은 1,320MW라고 발표.

□ 재생 에너지에 목표와 노력 감소

- 방글라데시는 지난 13년간 주로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에 대한 전력 부문에서 3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방글라데시가 2041년까지 재생에너지원에서 40%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저조한 실정.
- 민간 싱크탱크인 CPD(Center for Policy Dialogue)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으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부족한 실정. CPD의 발표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사회 기반시설 확보, 숙련된 인력,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 방글라데시는 2022년 에너지 부문에 2021년 대비 20.2% 증가한 34억 7,995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 CPD는 영국, 홍콩, 네덜란드, 중국, 미국, 일본 등이 방글라데시 전력 에너지 부문의 주요 투자국이라고 언급.
- 방글라데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관료주의와 업무지연 등 많은 문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글라데시 투자에 대한 열의가 하락.

- CPD는 투자자 편의 제공을 위해 원스톱 투자 서비스 센터 구축을 제안하고, 인프라 개발, 기술 이전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구직자 교육에 중점을 두며, 후방 연계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방글라데시 내 기존 177개 중소기업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클러스터 기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음.

□ ADP(연간 개발계획), 8년 만에 최저 수준

- 현재 회계연도의 첫 3개월 동안, 지난 8년 동안의 연간 개발 프로그램(ADP) 실적 대비 가장 저조한 수준을 나타냄.
- 23-24 회계년도 7~9월 기간에는 7.50%의 ADP만 이행, IMED(Imple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Division)의 데이터에 따르면 15-16 회계년도 이후 ADP 이행률은 항상 8% 이상이었음.

□ MRT 2,3호선 개발 지연

- 다카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MRT-2과 MRT-3의 노선의 건설이 6-7년 더 지연될 예정.
- DMTCL이 4년 전 정부가 두 프로젝트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MRT-1과 MRT-5의 건설 작업이 거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상황.
- JICA는 2-3년 전 MRT 노선에 대한 프로젝트 대출을 확정한 바 있으나, DMTCL은 공사 착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상기 2개의 라인에 대한 연간 개발 프로그램(ADP) 투자할당도 포기.
- 2019년 10월, 국가경제위원회(ECNEC)는 MRT-5호선(북방노선) 4,123억 8천만 Tk를 승인하였고, MRT-1 개발사업에 5,190억 Tk를 투자한 바 있음.
- ERD 고위 관계자는 DMTCL이 제때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못하면 정부는 JICA가 확정한 미상환 대출금에 대해 0.2%의 약정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힘. ERD 고위 관계자는 "게다가 프로젝트 수행기관이

대출금 상환 기간이 끝나기 전에 MRT의 상업적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면 경제적, 재정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

- DMTCL 관계자는 "문제가 된 MRT 노선의 착공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힘. MRT-5(북부노선)의 경우 DMTCL은 이날 대규모 운송 시작점인 헤마예트푸르에서 토지 취득 및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 MRT-5의 입찰 절차는 이미 시작.

3.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

□ 미국,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발전을 면밀히 관찰

- 미국은 방글라데시의 총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매튜 밀러 미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이해관계자(정부 관계자, 법 집행기관,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언론, 그리고 물론 유권자 자신도 이에 해당)가 평화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요하다"고 발표.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법치를 존중하고 폭력, 괴롭힘, 협박을 자제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

- 이에 앞서 피터 하 방글라데시 주재 미국 대사는 일요일 사무국에서 아사두자만 칸 내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로운 시위"와 "무간섭"의 정치적 과정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

□ 정부, BNP 집회를 막기 위해 공격과 폭력행사

- BNP의 미르자 파흐룰 이슬람 알람기르 사무총장은 토요일 정부가 나야팔탄에서 열린 당 대규모 집회를 계획적인 공격을 통해 무산시켰다고 주장.

- 그는 성명에서 "사전에 발표된 BNP의 평화적 대집회에 대한 경찰과 아와미 연맹 간부들의 계획된 폭력과 무력 공격은 전례가 없고 비열하다"고 말함.

- BNP는 지난달 29일 다카 카크레일 지역에서 당 지도부와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새벽(Dawn)부터 황혼(Dusk)까지 하탈(Hartar, 폭력집회)을 소집.
- BNP 지지자들은 경찰과 2시간 넘게 교전을 벌이면서 수도 나이팅게일 교차로를 둘러싼 지역은 전쟁터로 변했음.

□ BNP, 화요일(10.31)부터 3일간 봉쇄 발표

- 일요일 하루 동안의 하탈을 끝으로 BNP는 10월 31일(화)부터 3일 연속 전국적인 봉쇄령을 발표하며 원포인트 요구를 수용하고 토요일에 발생한 나야팔탄 대규모 집회에 대한 공격에 항의.
- BNP 및 그 산하 단체의 지도자와 활동가 1,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10월 31일, 11월 1일, 2일 전국에서 봉쇄령이 실행될 것으로 발표.

첨부 1 | **방인프라협력센터 재택근무 보고 (현지 소요사태 포함)**

'23.10.29(일), 방글라데시인프라협력센터

◈ 방글라데시 현지 총선(24년 1월)과 관련하여, 현지집회(야당 중심)가 예정되어 있으며, 과격한 파괴행위가 예상되는 바 駐방한국대사관에서 교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관련 내용을 보고합니다.

○ **(현지 상황)** '23.10.28(토)~10.29(일) 양일에 걸쳐 BNP(야당, Bangladesh National Party)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통상 Hartal(하탈) 이라고 하는 과격한 형태로 시위가 진행되는 바 駐방한국대사관에서는 교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

10.28(토) 집회대응, RAB, 다카 진입 지점에 검문소 설치

파괴 행위 방지 / 평화로운 모임을 위해 신속행동대대(RAB)가 10월 28일로 예정된 정당 집회에 대해 보안 조치를 강화할 예정. RAB는 파괴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총기나 폭발물을 소지한 개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카 시 입구에 검문소를 설치할 예정. 또한, 도시 전역의 중요한 위치에 검문소가 설치될 것. RAB의 법률 및 미디어 부문 이사 Khandaker Al Moin 사령관은 수요일 오후 Karwan Bazar에 있는 RAB의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이 정보를 공개. 그는 평화로운 정치 모임이 방글라데시 민주주의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임을 강조. 법 집행 기관인 RAB는 특히 중요한 행사 기간 동안 도시 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10.29(일) 대사관 공지, 전국 시위 예정에 따른 신변 안전

10.28.(토) 오늘 총선관련 대규모 집회에서 정당 지지자와 경찰 간 충돌로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야당측 지지자들은 내일 10.2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에서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고 발표한 바, 교민들께서는 시위에 말려들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장소는 피하시고 불요불급한 외부 활동은 줄이는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재국 총선이 다가올수록 시위 양상이 과격해질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언론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대사관 영사과(+8802-5881-5026) 또는 비상연락전화(+88017-5563-96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29(일) 전국집회 (Hartal) 예정		BNP, 경찰살해

○ **(재택 근무)** 대사관 안내에 의거, 在방공기업(KOICA, KEXIM 등)은 재택근무를 실시, 당 센터에서도 재택근무 실시